

Religions Education and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Jonghyang Park¹, Eunyoung Kim^{2*}

^{1,2}Dongguk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online religious education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religious-themed courses among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K-MOOC).

[CONTENTS]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religion-related courses was collected on the K-MOOC platfor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rses opened were identified. Also, we selected two courses that represent the entire field of religious studies. As we took the courses, we analyzed the components of the course and the content aspects of the course to determine its characteristics.

[RESULTS] As a result, as of December 2022, religion-related courses accounted for 43 of the total number of about 1300 K-MOOC courses. It can be divided into religious studies in general, which seek an understanding of specific religions and utilize religion as a humanities education according to the subject. Among them, as a result of the case analysis of two courses focused on religious studies, the purpose is to cultivate a pluralistic attitude that reaches beyond acquiring knowledge and accepts various phenomena related to religion. In the systematic aspect, the course consists of videos, quizzes, discussions, and reading materials. The composition of this course shows a similar aspect to other K-MOOC courses, which is considered a limitation of the platform, not a religious studies. We can find a positive aspect to the possibility of online religious education. But also, it will be need that the efforts are required beyond the use of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such as MOOCs.

[KEY WORDS] Education about religion, religious studies, MOOCs, K-MOOC, e-learning

* **Corresponding to** Eunyoung Kim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the Expansion of Academic on Korea, Dongguk University) E-mail : tara@dg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온라인 공개수업(MOOCs)을 통한 종교교육 현황과 특성

박종향¹, 김은영²

^{1,2}동국대학교 K학술혁신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온라인공개수업(K-MOOC) 중 종교 주제의 강좌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온라인 종교교육의 현황을 정리하고 그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내용] K-MOOC 플랫폼에서 종교 관련 강좌 현황을 수집하여 개설 강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 중 종교학을 주제로 전체 내용을 구성한 2개 강좌를 선정하여 실제로 수강하면서 구성요소와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종교 관련 강좌는 전체 K-MOOC 강좌 수(1300여개) 중 43개에 해당하였다. 이 강좌들은 주제에 따라 종교학 일반에 대한 강좌, 특정 종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강좌, 인문교육[문학, 사학, 철학]으로서의 종교를 활용한 강좌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종교학 분야에 집중한 2개 강좌의 사례 분석 결과, 내용적 측면에서 종교에 대한 지식 습득을 넘어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받아들이는 다원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계적 측면으로는 한 주 내에 이수할 수 있는 학습 분량으로 20분 내외의 비디오 영상들과 퀴즈, 토론, 읽기자료 등으로 강좌가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여타의 K-MOOC 강좌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종교학 강좌만의 제한점이 아닌 K-MOOC 플랫폼의 한계로 간주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종교교육의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엿볼 수 있었지만, 양질의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MOOCs와 같은 온라인 학습환경을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교수자와 운영진의 노고가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종교교육, 종교학, MOOCs,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온라인 교육

I. 서 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종교 상황을 단순히 정의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불교, 개신교와 천주교 등이 강세를 보이고, 민족종교나 신종교 등 기타 종교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현대의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 국가이며 신도 확보를 위한 경쟁에 가까운 노력을 볼 수 있다(Baker, 2016: 8). 일부 종교들의 배타주의는 사회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복잡한 종교적 상황 속에서 종교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종교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들어서고 있는 사회변화에 적응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종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 삶의 질을 제고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종교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Kim et. al., 2013: 122; Na & Youn, 2022: 83).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신앙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n),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등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다. 즉, 특정 종교의 신도가 되거나 종교 관련 강의가 개설된 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는다면, 종교에 관심이 있는 개인의 교육받을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적 영역의 종교교육도 일부 국립 교육시설을 제외하면, 종교계 설립 중등 및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목표와 내용에 대해 고려할 지점이 많다.

본고에서는 종교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를 배우는 동시에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s, 이하 MOOCs)을 다루고자 한다. 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서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말한다(Song et. al., 2020: 166). 온라인 공개수업은 연령, 성별, 학력 등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고등교육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표방하며 2015년 운영을 시작한 K-MOOC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온라인 공개수업 플랫폼이다. 2019년 7월부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일부 강의들은 학점도 인정받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0개 이상의 대학(단체)들이 참여로 1300여개가 넘는 강좌들이 종강, 진행 중이거나 혹은 개강 예정이다.

또한 K-MOOC에서는 학습내용이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차별적 요소, 편견 등을 사유로 적합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는지 점검하여 개발·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본고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K-MOOC 강좌들의 경향과 특징, 교육설계 등을 살펴보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MOOC의 개념 및 특성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으로(Khalil & Ebner, 2015: 629), 전 세계의 모든 대중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공유(open)의 이념에서 기치되어 공개교육자원(Open education resource), OCW(Open Course Ware)의 연속선상에서 발전되었다. 때문에 교육 대상을 특정하기보다는 누구나에게 무료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된다.

MOOCs는 비디오, 읽기자료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대학 온라인 수업, OCW 학습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Lim & Kim, 2014: 616). 먼저 일방향적인 강의 제공이 중점이 되던 것과는 달리 쌍방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OCW 및 기존의 온라인 수업은 일반 강의를 촬영한 형태로 영상이나 학습자료를 온라인에 탑재하는 형식이 주를 이룬 반면, MOOCs는 온라인 토론, 게시판, 메신저, SNS,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또는 콘텐츠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때문에 언제든지 학습이 가능한 OCW와는 달리 MOOC는 강의를 공개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MOOC는 수강인원이 제한된 전통적인 대학 온라인 강좌와 달리 참여자 및 등록자 무제한을 대상으로, 대규모 학습을 전제로 학습을 제공한다(Khalil & Ebner, 2015: 630).

초기 MOOCs는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인공지능 개론” 수업으로 10만 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하였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무료 강좌를 추가로 열어 높은 등록률을 기록하였다. 참여자의 무제한은 대규모 학습자의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온라인 수업보다 학습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온라인 시스템과 비교할 때 매우 간편하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것, 본인인증이 단순한 점, 과제 및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책의 단순화 등 매우 단순한 구조로 플랫폼이 제작된 점은 이러한 변화된 학습환경의 일부이다. 그리고 다수 학습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업 길이와 적절한 수업 주차(classes), 강의계획서(syllabus)에 따라 구성된 수업 설계와 비디오 수업, 온라인 퀴즈, 그리고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포럼, 협동과제 등이 포함된 온전한 온라인 수업 양상 (Khalil & Ebner, 2015: 630) 역시 변화된 수업 서비스로 가름된다. 이처럼 MOOCs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달, 평가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강좌들은 대학의 학점 인정 및 자격증, 학위 취득까지 연결되고 있다.

2.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해외 MOOCs의 경우, 대학이 주축이 되어 강좌를 개설하고 이후 서비스 제공업체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확장하는 반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정부가 주도하여 기획, 운영하여 강좌가 탑재된 플랫폼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지만 실제적 콘텐츠 제공 및 수업은 대학이나 각기 다른 콘텐츠 제공 기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익법인 등에서 운영한다(Kim & Kim, 2019: 454). 해외 MOOCs의 플랫폼으로는 미국의 Coursera, edX, Udacity 그리고 중국의 XuetangX, 프랑스의 FUN, 영국의 FutureLearn 독일의iversity, 인도의 SWAYAM, 이탈리아의 eduOpen, 호주의 Open2Study, 아랍어 사용자들을 위한 Eduraak, 멕시코의 MéxicoX, 일본의 JMOOC 등이 있다.

K-MOOC는 2015년 2월 시범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를 시작으로 2015년 10월 K-MOOC 홈페이지 시범개통을 통해 처음 온라인 공개강좌를 제공하였다. 2015년 7개의 강좌를 시작으로 2021년 1,358개 강좌(누적)가 건축, 경영, 컴퓨터 과학, 데이터 분석 및 통계, 공학, 음식 및 영양, 법, 문학, 수학,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운영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3). K-MOOC에 강좌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참여기관은 2015년 10개 대학에서 2019년 116개 대학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12월말 기준 가입자는 96.2만명, 청강을 포함한 수강신청은 225.8만건, 방문 2,393만건에 달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30). 매년 강좌수, 신규 가입자 수, 수강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강좌의 양적, 질적 확대는 물론, 인프라와 제도적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이다(Byun et al., 2016: 635).

그럼에도 K-MOOC은 해외 MOOCs 대비 강좌 수가 부족하며 인문·사회·공학분야에 편중되어 있기도 하다. 다양한 분야의 신규 강좌 개발과 K-MOOC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학의 학점인정, 공무원 및 교원 상시학습 인정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발전되는 중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4; Nam & Jo, 2019: 36). 최근에는 대학의 학점 이수 이외에도 특정 기업 또는 대학만을 위한 소규모 온라인 과정도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학습자가 민간 기업 및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습득하고 이수증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기도 한다.

K-MOOC 플랫폼은 MIT와 Harvard가 공동출자하여 개발한 오픈소스인 Open edX를 기반으로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개발한 플랫폼이다. Open edX는 FUN, XuetangX 등 전세계 40여개 정부 및 민간 MOOCs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미 검증된 공개 플랫폼이다(KEDI Education Policy Network, 2015).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동영상 강의가 탑재되고 영상을 비롯한 읽기자료, 퀴즈, 토론 등 학습활동에 학습자가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게시판, 동료평가, 이메일 등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학습자-콘텐츠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관리 체제도 구축되어 있다.

플랫폼에 탑재되는 강좌는 여러 주제(주차, section)로 구성되고 하나의 주제는 1개 이상의 소주제(차시, subsection)로 구성된다. 하나의 소주제에는 앞서 언급된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유닛, unit)으로 만들어진다. 이때 영상은 약 20분 내외로 제작되는 것이 권장되며 영상에는 기본 강의 자막과 영어 자막이 필수 제공된다. 그 외 외국어 자막을 참여기관에서 추가 제공한다. 영상의 속도는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0.75~2배속까지 조절 가능하고 희망하는 언어의 자막도 선택가능하다. 플랫폼에 탑재되는 모든 콘텐츠는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최종 품질검수 과정을 거쳐 테스트를 통과한 후 운영된다. 검수항목은 콘텐츠, 저작권, 웹 접근성 분야로 크게 구분한다. 콘텐츠에는 강좌내용, 윤리성, 교수설계, 동영상, 학습자료 상호작용, 학습지원 등이 해당된다(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22a: 14).

III. MOOC를 통한 종교교육 현황과 경향

1. 종교 관련 K-MOOC 강좌 개설 현황

K-MOOC 플랫폼에서 종교 관련 교육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1985년부터 10년 주기로 한국의 종교인구 통계를 담당해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유종교인의 종교 구분을 따랐다.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등과 같은 특정 종교명이 조사 키워드의 기초가 되었다. 이에 더하여 일반명사로서의 종교를 추가하였으며,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가톨릭)로 세분화한 키워드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해당 키워드로 검색 시 노출은 되었으나 종교와 크게 관련이 없는 강좌들은 제외하였다.

2. 개설 강좌의 특징

종교 관련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는 K-MOOC 강좌는 43개이며,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종교학 일반에 대한 강좌, 특정 종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강좌, 인문교육[문학, 사학, 철학]으로서의 종교 활용 등이 그 것이다.

첫째, 종교학 일반에 대한 강좌는 <①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및 <② 종교 상징의 이해> 2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신종교에 해당하는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증산교 등은 <①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에서 신종교라는 분류로 1주차 정도 분량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증산교 계열의 종교 중 하나로 수업 중에 간략히 언급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종교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1> K-MOOC 종교 관련 개설 강좌 현황
 <Table 1> Courses Related to Religions on K-MOOC

번호	강좌명	분야	난이도	해당 키워드 ¹⁾	분량 ²⁾	종교 관련 주제(명)
1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언어·문학	교양	1,2,3,4,5,6,7	13/13	전체 종교 관련 콘텐츠
2	종교 상징의 이해	인문과학	교양	1	15/15	전체 종교 관련 콘텐츠
3	세 문명 이야기: 중세 지중해 교류사	인문과학	교양	1,3	1/15	종교와 교역
4	인간, 향(香)을 만나다	인문과학	교양	1	2/15	향(香)과 마음/향(香)과 종교(의례)
5	또 하나의 유럽, 발칸 유럽의 역사 문화 이해	인문과학	교양	1	1/16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 발칸유럽
6	이슬람 문명의 역사와 문화기행	인문과학	교양	1	15/15	전체 이슬람교 관련 콘텐츠
7	역사와 문화 속의 인간	언어·문학	교양	1	2/15	죽음/종교와 철학에서의 죽음
8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의 인문학	인문과학	교양	1	2/15	종교와 의료/ 환자 치유에 종교가 도움이 될까?
9	100개 한자로 읽는 중국문화	언어·문학	교양	1	1/14	사상 가치: 종교와 조상숭배
10	빅뱅 콘서트, 우주·생명·문명	수학·물리· 천문·지리	교양	1	1/11	종교와 천문학
11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Ⅱ	사회과학	교양	1	0.1/8	종교적 양심과 저항: 종교인
12	현대 세계관의 이해	인문과학	교양	2,3,4	5.1/14	세계관의 기능(기독교 세계)/ 기독교세계관/힌두교/불교/이슬람/유교
13	논쟁으로 보는 한국 성리학	인문과학	전공 기초	2,4	16	전체유교 관련(일부 불교) 콘텐츠
14	초기불교	인문과학	교양	2	15	전체 불교 관련 콘텐츠
15	불교가 묻고 내가 답한다	인문과학	교양	2	15	전체 불교 관련 콘텐츠
16	백제속의 동아시아	인문과학	교양	2	2/15	불교 경전과 백제 불교 등 백제 불교문화와 동아시아 등

1) 1=종교, 2=불교, 3=기독교, 4=유교, 5=개신교, 6=천주교, 7=기타(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증산교, 대순진리회)

2) 관련 주차/총 강좌 주차(소수점은 차시에 해당)

<표 1> K-MOOC 종교 관련 개설 강좌 현황 (계속 1)

<Table 1> Courses Related to Religions on K-MOOC

번호	강좌명	분야	난이도	해당 키워드 ¹⁾	분량 ²⁾	종교 관련 주제(명)
17	동양사상의 이해	인문과학	교양	2	15	전체에서 동양사상(유교와 불교) 관련 콘텐츠
18	현재와 과거를 잇는 한국문화사	인문과학	교양	2	1/5	불교 수용과 한국적 특성 통일신라의 불교 발전과 거인의 등장, 불교 사원 건축의 비밀
19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문 (언어·문학)	교양	2	1/15	신라시대 호남 지역의 불교문화
20	고려의 유산	인문과학	교양	2	1/8	고려의 불교 문화
21	한국의 세계유산	인문과학	교양	2	1/5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대장경판 및 계경판/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 세계유산: 종묘
22	5분 안에 훑어보는 ‘북한의 민족유산(문화재)’	언어·문학	교양	2	1/15	북한의 불교문화 유적
23	고전의 현장과 스토리	언어·문학	교양	2	0.2/13	팔만대장경의 판각 장소/의상대와 불교
24	인문고전으로서의 성서읽기-구약편	인문과학	전공 기초	3	15	전체 기독교 성서 관련 콘텐츠
25	건축으로 읽는 사회문화사	건축	-	3		강의 내용 중 초기 기독교 건축, 비잔틴 건축 포함
26	통일한국 준비와 조망	사회과학	-	3	1/14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27	서양철학산책	인문과학	-	3	1/7	중세철학: 기독교와 철학의 만남/ 중세철학: 스콜라 철학, 신앙과 철학
28	대운하를 통해 본 중국의 정치경제사 II	인문과학	-	3	1/7	1724년 : 기독교에 대한 포교 금지령을 내렸던 옹정제의 관점에서
29	동양고전 <사서>에서 찾는 인간의길	인문과학	전공 기초	5	16/16	전체 유교 관련 콘텐츠
30	조선후기 사상과 문화	인문과학	교양	6,4	0.2/15	한역 서학서와 <천주실의>/ <천주실의>가 던진 철학적 물음 외 서학 (천주교)과 기존 유교사상에 대한 내용
31	분단과 평화에 관한 문: 화인류학의 탐색	사회과학	교양	6	0.2/7	가톨릭 평화메시지와 한국천주교회의 활동 1,2
32	민족의 지성 다산 정약용의 삶과 철학	인문과학	교양	6	1/15	다산의 교유관계와 서학, 천주교
33	한국문화사	언어·문학	-	6	1/15	불교·천주교·도교 문학

<표 1> K-MOOC 종교 관련 개설 강좌 현황 (계속 2)

<Table 1> Courses Related to Religions on K-MOOC

번호	강좌명	분야	난이도	해당 키워드 ¹⁾	분량 ²⁾	종교 관련 주제(명)
34	희망의 인문학: 우리는 희망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가 II	인문과학	교양	6	1/7	한(恨)의 정서와 천주의 발견
35	주역, 잘 먹고 잘 살기	인문과학	전공 기초	4	7/7	전체 유교 관련 콘텐츠
36	자연학 · 예술 · 한의학 · 인공지능 · 정치학과 유학의 만남: 인접학문에서 유학을 바라보다	인문과학	교양	4	15/15	전체 유교 관련 콘텐츠
37	장자(莊子) 변신에서 자유를 찾다	언어 · 문학	교양	4	8/8	전체 도가 관련 콘텐츠
38	동양미술의 광기와 창의성	인문과학	교양	4	0.3/6	공자의 광자(狂者)에 대한 이해/ 노장의 광언(狂言)에 담긴 광기/ 주희와 왕수인의 광자관 비교
39	공자의 지혜 The Confucius' Wisdom	인문과학	교양	4	11	전체 유교 관련 콘텐츠
40	양명학, 돌봄과 공생의 길	인문과학	-	4	15/15	전체 유교 관련 콘텐츠
41	춘추(春秋): 이상 사회를 향한 역사의 법정	인문과학	-	4	11/11	전체 유교 관련 콘텐츠
42	서경, 덕의 나라를 향한 진군가	인문과학	전공 기초	4	12/12	전체 유교 관련 콘텐츠
43	예기(禮記):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 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인문과학	-	4	12/12	전체 유교 관련 콘텐츠

둘째, 특정 종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강좌들은 <⑥ 이슬람 문명의 역사와 문화기행>, <⑬ 논쟁으로 보는 한국 성리학>, <⑭ 초기불교>, <⑮ 불교가 묻고 내가 답한다>, <⑳ 인문고전으로서의 성서읽기-구약편>, <㉑ 동양고전 <사서>에서 찾는 인간의길>, <㉒ 주역, 잘 먹고 잘 살기>, <㉓ 자연학 · 예술 · 한의학 · 인공지능 · 정치학과 유학의 만남: 인접학문에서 유학을 바라보다>, <㉔ 장자(莊子) 변신에서 자유를 찾다>, <㉕ 공자의 지혜>, <㉖ 양명학, 돌봄과 공생의 길>, <㉗ 춘추(春秋): 이상 사회를 향한 역사의 법정>, <㉘ 서경, 덕의 나라를 향한 진군가>, <㉙ 예기(禮記):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 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등 13개 강좌들이 있었다. 이들은 강좌명만으로도 특정 종교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교 관련 강좌가 9개로 다른 종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유교를 대표하는 특정 인물이나 원전 자체가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의 구약을 고전교육의 일환으로 개설한 강좌도 있기는 하나, 유교에 있어서는 특정 종교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인문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일반의 경향이 온라인 영역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개별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종교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 강좌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강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내용 중 종교 관련 내용은 소략하기 때문에 이 강좌들을 종교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체계화를 통한 일관성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종교를 일부나마 활용하는 강좌의 수가 종교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강좌의 수보다 많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현재를 배우는 데에 있어 여전히 종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관련 강좌들 대부분이 인문 분야에서 개설되어 있다는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앞서 정의 내린 세 가지 특징을 박선영의 종교교육의 세 가지 차원이라는 이론에 따라 재분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Park, 2006: 266-267). K-MOOC 운영지침에 따라 특정 종파의 신앙교육을 위한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n)은 운영될 수 없다. 때문에 현재까지 개설된 강좌들은 종교 일반의 본질과 문화를 객관적 지식으로 이해하게 하는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이 대부분이다. 특정 종교들의 가르침이나 신념체계가 아니라 원숙한 인격교육을 위해 필요한 종교성 즉 궁극적 가치지향성을 교육하는 종교적 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us)의 차원에서 개설된 강좌는 찾아보기 어렵다. 존 듀이(John Dewey)가 *A Common Faith*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종교(religion)’와 ‘종교적인(religious)’ 것은 다르다(Dewey, 1966: 87).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종교와 종교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성숙한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은 온라인 영역에서도 종교를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에서만 교육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검색 키워드와 관련한 오류들도 보인다. 예를 들어, <㉑ 동양고전 <사서>에서 찾는 인간의 길>의 경우 유교 관련 주제임에도 유교 키워드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았다. 대신 개신교 키워드 검색에서 해당 강좌가 노출되는데, 이는 일부 주차 차시의 제목에 개신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가와 관련한 강좌(㉒ 장자(莊子) 변신에서 자유를 찾다)의 경우, 종교라는 키워드 검색 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강의자의 소속에 포함된 유교라는 단어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값의 미비는 종교교육에 접근하려는 예비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검색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2023년부터는 강좌 개발 시 주차 별로 주제어 해시태그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 어느 정도 개선이 기대된다.

그리고 대부분 강좌 난이도가 교양 수준으로 인문영역에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수준 이상의 전문 교육이나 통섭적 측면에서의 종교교육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세계종교의 다채

로운 모습과 역할에 비해 단편적인 접근방식의 강좌만 개설되어 있는 현황 역시 차차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종교학 관련 강좌 특성 분석

앞서 살펴본 종교 관련 강좌들 중에서 다양한 종교를 다루는 <①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② 종교 상징의 이해>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체계와 내용 측면에서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보았다.

1) 체계측면

체계측면의 분석은 설계, 전달 및 평가 영역으로 분석하였다(Datadounis et al., 2013: 208). 2022년 9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2개 강좌를 수강하여 강좌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설계], 적극적 참여를 위해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는지[전달],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평가] 분석하였다.

(1) 설계

두 강좌 모두 한글 강의이며 자막으로는 영어와 한글이 제공되었고, 13주차 이상으로 수업이 구성되었다. 강좌 운영 기간은 약 3개월(9~12월)에 해당하며 매주 한 주제의 영상들과 학습활동 등이 순차적으로 개설되었다. 강좌는 교양수준으로 누구나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제공되었으며, 학습자들에게 교재 및 참고문헌을 권장하기도 했지만 교재 없이도 매주 강의 자료가 제공되어 학습 완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한 유닛에는 관련 소주제의 동영상 5개, PDF형식의 학습자료, 퀴즈, 토론이 있었다. 동영상은 도입, 전개, 결말 형식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는데 <①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경우, 주차소개 및 학습목표(1-3분) 영상 1개, 관련 토픽 강의 3개(각 15분 내외), 학습정리 영상(1-2분) 1개로 구성되었다. <② 종교 상징의 이해>의 경우에는 핵심질문 및 과정소개(5-10분) 1개, 관련 토픽 강의 3개(각 15분 내외), S토리(주차정리에 해당/2분 내외) 영상 1개로 구성되었다. 영상은 도입-전개-마무리 과정으로 구분되어, 도입부분에서는 학습목표, 핵심질문 및 과정소개 과정을 통해 강의 진행에 앞서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예를 들면 ‘인간의 경험하는 성스러움, 성현’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성스러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양한 사례와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주제에 접근하였다. 이 도입과정의 영상은 본 강의에 비해 짧게 구성된 편이다. 본 강의 영상에는 구체적인 학습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약 15분 내외로 구성되어 한 주당 약 45분의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①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의 영상은 블루스크린을 배경으로 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교수자 1인과 관련 텍스트 및 이미지의 영상이 합성되어 제작되었고 <② 종교 상징의 이해>의 경우, 스튜디오

에서 교수자 1인이 진행하는 수업 장면을 촬영하고 이미지 및 텍스트 화면으로 편집한 영상이다. 마무리 영상은 주차별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중요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단계로, <② 종교 상징의 이해>의 경우에는 교수자의 설명 대신 별도의 내레이션을 활용하여 영상이 제작되었다.

<표 2> K-MOOC 종교학 강좌의 개요

<Table 2> Courses' Outline of Religious Studies on K-MOOC

	<①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②종교 상징의 이해>
운영기간	22.9.1~22.12.14	22.9.6~22.12.13
운영기관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총 구성	13주	15주(중간, 기말 포함)
학습인정 시간 (영상시간)	16시간 28분 (10시간 50분)	22시간 46분(17시간 42분)
학습활동	동영상, 학습자료(PDF) 퀴즈, 토론, 과제물	동영상, 학습자료(PDF), 퀴즈, 토론
평가	퀴즈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2) 전달

전달(delivery) 과정에서는 대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다. 두 강좌 모두 매주 퀴즈를 제공하였고 퀴즈는 단답형 또는 객관식 문항으로 자동 채점되어 점수 획득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습자는 각 문제에 대해 2번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답 체크 이후 문항에 대한 해설(설명)도 제공된다.

<①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의 경우, 매주 토론 주제가 제공되었고 게시판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었는데 제공 기관(대학)의 학생들에게는 토론 주제를 과제물로 제출하게끔 별도의 게시판을 생성하여 관리하였다. 때문에 토론 게시판은 해당 기관의 학습자들을 제외한 소수의 학습자만 이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대다수의 인원을 플랫폼에서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소속 기관 학생들에 한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습자들의 의견에는 교수자 및 운영진의 댓글이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은 확인되었지만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3주차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흔히들 우리주변에서 보는 종교는 모두 신이나 어떤 특정 대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업에서, 자이나교와 불교는 모두 신을 없애는데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크교는 강력한 군사집단이었다고도 했는데요, 신이 없는데 이것을 과연 종교로 볼 수 있을까요? 무력을 가졌지만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토론주제: ‘종교(宗教)’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교를 종교이게끔 만드는 내용이 무엇인지 토론해봅시다.

<② 종교 상징의 이해>는 주차 전체 학습이 끝나면 정리 차원에서 ‘종교학 S토리’ 영상 학습 후 토론 주제가 제시된다. 토론은 대부분 S토리를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후 토론에 적극 참여하였는지 자가 진단하는 문항이 별도로 제공되었다. 학습자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며 학습관리를 할 수 있다. 학습자 의견을 게시물로 작성하고 나면, ‘토론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성실히 개진 하였습니다나?’라는 질문에 다시 답하도록 하며, 다른 수강생들의 의견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1회 이상 댓글로 작성하도록 한다. 자기 학습 확인에 이어 학습자간 소통까지 유도하는 것이 이 강좌 토론 참여방법의 특이사항이다. 그러나 다른 학습자들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답하는 경우는 미비하였다.

위 두 강좌 모두 토론을 통해 학습의 심화를 유도하지만, 교수-학습자 간 피드백 및 학습자 간 상호 소통에 있어서는 일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교교육의 한계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MOOCs의 특성 차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주제에 비하여 종교는 개인의 내밀한 경험과 사회적 소통의 차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할 과제이다. 그 외 각 강좌의 운영진들은 간헐적으로 학습자들에게 해당 주차의 주제, 학습목표 및 토론 주제 등을 메일로 전달하여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 권장과 학습자들 사이의 친밀감이나 소통을 활성화하였다.

(3) 평가

두 강좌의 이수기준은 60점으로 이 점수를 충족하면 강좌의 이수증이 발급되었다. <①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는 퀴즈 100%, <② 종교 상징의 이해>는 퀴즈 30%,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5%로 평가방법이 구성되었다. 퀴즈는 매주차의 학습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안으로 학습내용을 기반으로 단답식, 객관식, OX퀴즈의 형식으로 제공된다. 퀴즈는 자동으로 채점되어 학습자들의 개별 점수가 누적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강좌에 따라 채점 이후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학습자들에게는 답을 체크할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제공된다. <② 종교 상징의 이해>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각 15개 문항으로 퀴즈와 같은 형식의 객관식, 단답식 형식의 문항이다. 평가요소는 학습자의 학습개선을 위한 자료이자 학습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과정에서 학습관리를 위해 제공되었던 토론, 과제물 등의 활동은 평가 단계에서 제외된 채, 플랫폼에서 자동 측정되는 퀴즈와 중간·기말고사만 평가항목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평가의 단순화는 다수

의 학습자들을 관리하고 강좌를 운영하는 편이를 위해 배제된 것은 아닌지 제고될 필요가 있다. 그 외 강좌의 플랫폼에서는 자신의 학습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 이수증 발급 조건의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2) 내용 측면

강좌가 다루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은 목표, 주차별 개요, 학습활동의 방향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1) 강좌 목표

해당 강좌들의 강의 소개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강좌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수업내용/목표’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국가로 접어들었는데도 여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강좌는 문화의 핵심인 종교를 중심으로 그것의 특징과 계율, 그리고 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 강좌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우리에게 친숙한 종교 뿐 아니라 힌두교, 자이나와 시크, 이슬람, 유대교 등 다양한 과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 모르면 무섭지만 알면 재미있고 몰라서 싸웁니다. 종교의 이해는 곧 다문화의 이해이자 타인을 인정하는 첫 걸음입니다.

<② 종교 상징의 이해> ‘강의 소개’

본 강좌는 학습자들이 종교 및 상징의 개념과 속성 등 이론적인 내용과 세계 여러 문화들의 다양한 종교 상징의 사례들을 공부함으로써 인류가 사유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를 통해 학습자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태도 및 종교 상징의 형태와 표상 방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고전 신화로부터 현대의 영화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 양식에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의 ‘수업내용/목표’와 ‘강의 소개’ 내용에 따르면, 두 강좌 모두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1차 목표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와 관련 다양한 현상을 받아들이는 다원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교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주체적인 전환을 일으켜 현실에 적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2) 주차별 목차

<①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의 경우 13주차로 구성되어 있고, <② 종교 상징의 이해>는 15

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1회의 고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강좌 모두 13주차 정도의 학습 일정에 따른 주차별 강의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분	<①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② 종교 상징의 이해>
주제1	다문화와 종교: 문화 또는 현상으로서의 종교 “종교를 이해하면 다문화를 이해한다”	종교 상징을 통한 인간 이해
주제2	힌두교: 개, 돼지만도 못한 천민들 “불평등은 신의 뜻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성스러움, 성현(hierophany)
주제3	자이나교와 시크교: 평등을 위하여 “힌두교를 개혁하라”	상징과 종교 상징
주제4	불교: 신 없는 소승, 신 있는 대승 “신이 되어 사라지다”	종교 상징을 통해 해석하는 신화와 의례(1) 신화
주제5	유대교: 디아스포라,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종교 상징을 통해 해석하는 신화와 의례(2) 의례
주제6	천주교: 하늘에는 구주, 땅에는 교황 “모세 없는 구약 없고, 바울 없는 신약 없다.”	종교적 인간의 우주, 공간과 시간의 종교 상징(1)
주제7	이슬람교: 예수보다 무함마드 “라마단, 배고파 봐야 이웃이 보인다”	종교적 인간의 우주, 공간과 시간의 종교 상징(2)
주제8	개신교: 교회 안에서의 항거 “누구나 신의 말씀을 알 수 있다”	종교적 인간의 우주 내 영역 구별하기 - 상징적인 깨끗함과 더러움
주제9	유교: 부자 상속의 원칙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늘과 태양의 종교 상징
주제10	도교와 산신 신앙: 별과 뱀 “모든 것이 신이다”	달과 물, 땅과 돌의 종교 상징
주제11	신불교 1: 동그라미의 진리, 염불의 힘 “끊어진 실을 잇다”	식물과 동물의 종교 상징
주제12	신불교 2: 50만의 개종식 “붓다는 비슈누의 화신이 아니다”	성(sexuality)의 종교 상징적 의미
주제13	신종교: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새 세상은 온다”	종교적 인간, 한계에 맞서다

두 강좌 모두 도입부(1주차)에서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모한 후, 개별 종교나 특정 종교 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주제들이 나열 형식으로 이어진다. <①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은 각 종교별로 구성하고, <② 종교 상징의 이해> 주제에 따라 관련 종교들의 구체화된

예시들로 구성하는 차이는 있으나 종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두 강좌 모두 종교라는 현상에 대하여 가르치는 인문적인 교양교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문화에 대한 건전한 상식과 다원적인 태도를 지닌 시민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다.

IV. 결론: 종교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위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한국의 다원화된 종교현상 안에서 종교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 온라인교육 플랫폼인 K-MOOC에 개설된 종교 주제 관련 강좌 개설현황을 탐색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2022년 12월 기준 1300여개 전체 강좌 중 직간접적으로 종교를 다루는 강좌는 43여개 정도로 약 3.3%에 해당한다. K-MOOC 수강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분석 결과에서는 향후 수강 의향이 있는 강좌로 인문계열이 23.2%[1순위 기준]로 나타났고, 1,2,3순위 기준으로는 63.7%로 공학, 사회 등 다른 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문과학’ 강좌에 대한 의향은 65.6%로 가장 높았다(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22b: 46-48). 철학, 자기계발 등 인문과학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주제 개설강좌는 일부이다. 또한 교육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종교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함양하는 내용 위주의 강좌들이 대부분이었다. 강좌 전체에 걸쳐 종교를 다루는 강좌보다는 연관 주제의 강좌 안에서 종교에 대한 내용을 일부 활용하는 강좌들이 다수였다. 그 중에서도 세계종교나 종교현상을 일관되게 다루는 2개 강좌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다시 살펴보면, 종교에 대한 건전하고 다양한 상식 습득에는 충분하지만 한국의 종교현실에 대한 실체적 이해나 개인적 차원의 종교성을 함양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한계가 보였다.

둘째, 종교학 주제 강좌의 구조적 측면은 여타의 K-MOOC 콘텐츠와 유사하게 제작되어 전달·평가되었다. 각 강좌들은 한 주 내에 이수할 수 있는 학습분량으로 20분 내외의 여러 비디오 영상들과 주차별 퀴즈 및 토론, 읽기자료 등으로 구성되었고 강의 계획서, 강좌 안내 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강좌를 안내하였다. 각 주차별(세션) 안에 구성된 짧은 비디오 강의, 비디오 영상 내에 무엇을 배울지 설명하는 제목 제시, 그리고 비디오 외의 퀴즈, 토론 등의 학습활동들은 MOOCs의 다른 강좌들과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Jung, An, & Lee, 2016: 33-35). 그러나 이러한 강좌의 구조는 보편적으로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전달하고 일차적인 학습활동의 참여를 유도할 뿐 학습내용 및 목표에 적합한 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이 제공되었는지, 학습활동에서 학습자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MOOCs 강좌에서 보이는 강의영상을 통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 토론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의 기회 부족, 평가방법의 신뢰성 부족은 이 강좌들 뿐 아니라 보편적인 MOOCs의

약점(Lee, 2017: 230)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전달에 중점을 둔 K-MOOC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한계는 태생적일 수밖에 없다(Lee & Jeon, 2019: 9). 실제 강좌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학습자를 위한 학습관리는 교수진 및 운영진의 시간, 비용 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K-MOOC의 강좌는 학습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운영기간 이외에도 청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운영 과정에 많은 공정이 들어가기 쉽다.

이 강좌들 역시 다양한 종교 사례를 학습하고 종교의 이해, 인류가 사유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1:1 피드백, 토론 주제에 대한 동료 간의 공감 및 평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 개진과 학습자 의견에 대한 단순 피드백이 아닌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향적(forward) 성격의 피드백이 몇 차례 확인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종교교육의 발전 가능성은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수준 이상의 학습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진 플랫폼만을 학습 환경으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운영진과 교수자의 적지 않은 노고가 요구된다. 이를테면 공학이나 실용학문을 다루는 강좌의 경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물을 생성하여 탑재하고 소그룹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기도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종교교육의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더 나은 새로운 지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한다. <종교와 명상>, <종교 간의 대화> 등 종교성을 함양하고 학습자의 깊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 <종교와 과학> 등 인문과 자연과학 영역이 통합된 주제, <한국의 종교문화 이해> 등 수강생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와 같이 우리 사회와 삶을 이해를 돕는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교육기관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매년 공고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개설된 강좌의 실제 확산을 위해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 등과 연계한 강좌 기획, 개설 강좌의 학점 인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종교교육에 있어서 그 시행 목적에 따라 종교의 의미는 달라진다. 앞으로의 종교교육의 중심 주제는 개별 종교들을 연상하게 하는 종교라는 단어보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미래라는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지평 안에서는 종교문화(religion as a culture)가 되어야 할 것이다(Jung, 2000: 1-19). 온라인 교육이 이런 종교문화교육의 확산에 일조하고, 우리 사회에서 나와 이웃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는 시민성 함양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aker, Don (2016). The Emergence of a Religious Market in Twentieth-century Korea. *Review of Korean Studies* 19(1), 7-39.
- Byun, M. K., Lee, J. H., Hong, S. H., Cho, H. M., & Cho, M. H. (2016). Instructional Strategies to Promote Interaction in K-MOOC: Focused on Moore's Three Types of Interac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2(3), 633-659.
- Daradoumis, T., Bassi, R., Xhafa, F., & Caballé, S. (2013, October). A Review on Massive E-learning (MOOC) Design, Delivery and Assessment. In *2013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2P, Parallel, Grid, Cloud and Internet Computing*. IEEE.
- Jung, H. J., An, J. H., & Lee, H. J. (2016). Search for Designing Strategies of E-Learning for Engineering Through Analyzing the Best Practices of Overseas MOOCs. *Korean Institute for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8(1), 31-37.
- KEDI Education Policy Network. (2015.9.16.). Construction and Strategy of K-MOOC Platform. Retrieved 2015.9.16. from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66&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260414>
- Khalil, H. & Ebner, M. (2015).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MOOC?: A Research Study about Interaction in Huge Online Cours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5(12), 629-639.
- Kim, G. S., Ryu, S. M., & Ko, S. Y. (2013). Religious General Education Activation Pla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1, 121-144.
- Kim, S. M. & Kim, S. K. (2019). A Systemic Review of Research on MOOCs: focused on Research articles in Korean Journal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5(3), 451-476.
- Lee, B. H. (2017). The Analysis of Current MOOC Trends in the USA Major MOOC Platforms: The Role of MOOCs and Implications for K-MOOC Oper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3(2), 227-251.
- Lee, J. M. & Jeon, J. A. (2019). An Analysis on Percep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Learners on MOOC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3), 1-11.
- Lim, K. & Kim, M. H. (2019). A SWOT Analysis of Design Elements of Korean MOOC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 615-624.
- Na, K. S. & Youn, J. K. (2022). Analysis of Religious Education Status as General Education

- and Research on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1, 81-99.
- Nam, C. W. & Jo, D. U. (2019). The Development of Tutors' Role Indicators for Facilitating Learning in K-MOOC.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5(3), 35-60.
- Song, J. H., Kim, J. H., M. H., Yoo, and Y. J. Jang (2020). The Effect of MOOC-based Learning in Korea: A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6(1), 163-190.
- 교육부 (2022).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안).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 2022 K-MOOC(Korean-Massive Online Course) Basic Plan.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2a). 2022년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운영사업 참여기관 매뉴얼. (Translated in English)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22a). 2022 K-MOOC Operating Participating Agency Guidelin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2b). 2021년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수요분석 및 활용현황 조사. (Translated in English)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22b). 2021 K-MOOC Demand Analysis and Utilization Status Survey.
- 박선영 (2006). 불교와 교육.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Park, S. Y. (2006). *Buddhism and Education*. Seoul: Hakjisa.
- 정진홍 (2000). 종교문화의 논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Jung, J. H. (2000). *Logic of Religious Cultur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